

2021년 자금세탁방지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

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의 날('21.11.23.)을 맞이하여 자금세탁방지 부문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
이와 관련하여 정부포상 후보자 총 6명에 대한 공적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추천대상자를 검증하시고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- 담당자 : 김영석(02-2100-1759, demitry@korea.kr), 홍종민(02-2100-1752, hongjm12@korea.kr)
- 의견 접수기간 : '21. 9. 16.(목) ~ '21. 09. 30.(목)

* 개별 의견에 대하여 별도의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.

< 포상 개요 >

- 추천기관 : 금융정보분석원
- 포상예정일 : '21. 11. 23.(화)
- 포상규모 : 포장 1, 대통령 표창 1, 국무총리 표창 1

* 포상 대상자는 공개검증, 공적내용 현장확인, 공적심사 등 정부포상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.

* 연번 : 가나다순

연번	성명	소속·직위	주요공적
1	김우	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1.3~5월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, '20.9~11월 옵티머스자산운용사건 자금세탁행위를 규명하여 범죄수익 환수에 큰 역할 - 21대 국회에서 독립몰수제 법안의 입법,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산정박식의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- 검찰 내부규정 정비,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바꿈
2	류선해	국민은행 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은행 자금세탁방지부서에서 10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전담하여 안정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이행체계 및 시스템 운영으로 특금법에 따른 금융회사 의무를 충실히 수행 - 다변화되는 자금세탁 유형에 대응하고 우수사례를 타 금융회사에 전파 및 FIU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- 적법하고 성실한 제도이행 결과로 FIU에서 실시하는 국내 전 금융회사 대상 제도이행종합평가에서 국민은행이 연속으로 우수기관 선정
3	송근섭	ACAMS (국제자금세탁 방지전문가협회)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CAMS(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)의 한국대표로 CAMS 한국어시험 출시로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들의 전문가 자격 취득에 기여 - 2008년부터 AML Sanction List를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국내 은행에 공급하면서 최소 약 100억원 이상의 외화 유출 절감 - 모든 금융회사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AML 국가위험지표(Country Risk Index)를 특허 기술로 제품화해서 은행에 제공(하나은행, 기업은행)함으로써 AML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 - 2007년부터 금융회사 임직원 방문교육, 약 860명 이상의 은행 담당자에게 Weekly AML Report 발송, 언론에 AML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기고 등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 업무 교육에 기여

4	이윤석	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	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자금세탁방지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한 지난 14년 동안 금융정보분석원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자금세탁방지정책 자문, FATF 총회참석 및 의장국 수행관련 자문을 통한 국제협력,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 활동을 통한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 발전에 기여
5	김진광	원진회계법인 대표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몰수특례법 제정 이후 범죄수익 보전 권한을 경찰 수사에 안착시켜, 범죄수익 보전금액이 24배 이상 증가(212억→5,073억)하는 성과를 달성 - 이를 위하여 △법·제도 개선, △전담인력 증원(106명), △15억 상당 예산 확보 추진, △가상자산 등 주요 사건의 범죄수익을 보전하여 종국적으로 자금세탁행위를 척결함
6	전요섭	금융정보분석원 실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, 전자금융 거래질서 확립 및 금융회사 감독체계 개선 등 자금세탁 방지제도 구축이행을 위한 업무 추진 -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금법을 개정하고 법정사무 전담을 위해 FIU 내 조직을 신설 -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FIU의 자동화 수준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기반 머신러닝 기술을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에 도입 - FATF 논의에 주도적 참여로 회원국간 네트워크 강화